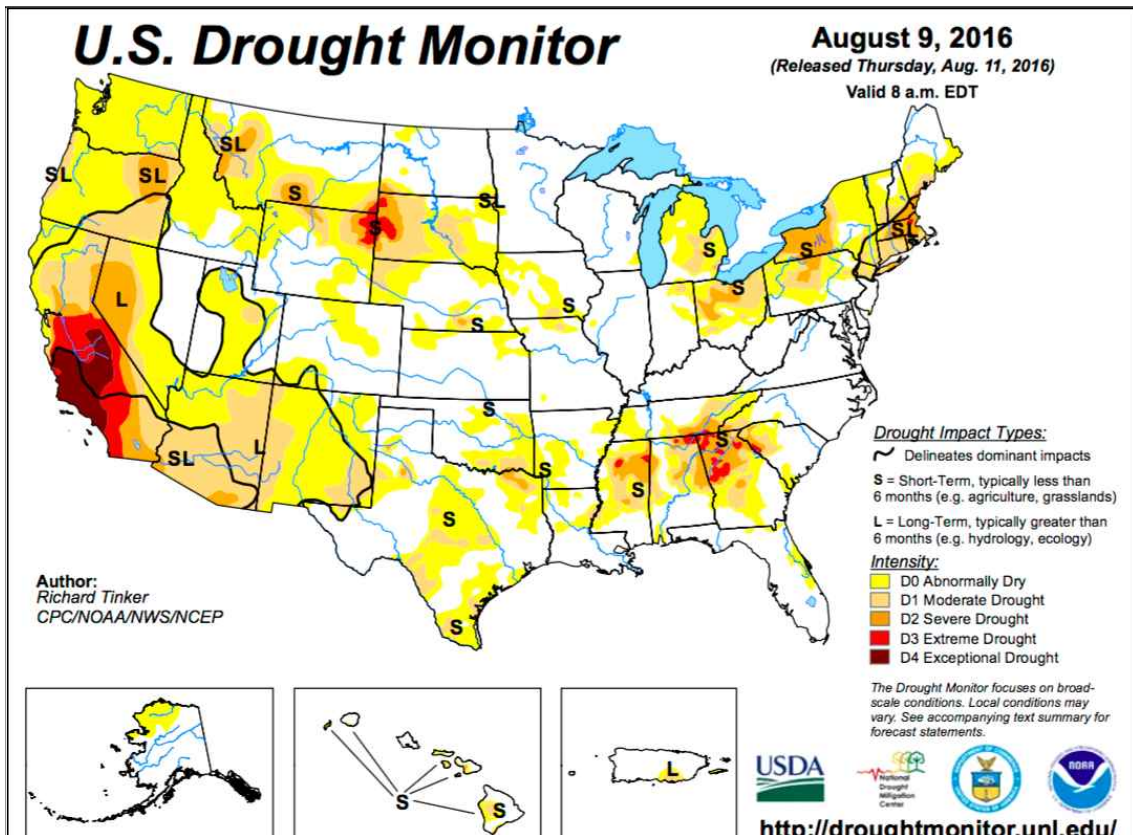


8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3)

□ 미국 기후 현황(8/7~8/13)

걸프 연안을 따라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플로리다 Big bend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주 후반 루이지애나 남부까지 확대되었다. Amite, Comite, Tickfaw, Tangipahoa 강 및 루이지애나 남부에서는 지난주 중반부터 후반사이 10~20인치 이상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한편, 로키산맥 남부와 북동부 및 대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걸프연안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중서부에 위치한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북서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남중부 일대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고, 동부에서도 더운 가운데 비가 가끔 내렸다. 뉴 잉글랜드 부터 오대호 등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가 내려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 농업 현황 요약(8/8~8/14)

동부에서는 지난주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특히 오하이오 및 대서양 연안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이상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에라 네바다에서부터 미시시피강 상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F 정도 낮았다. 걸프 만 연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 강우량이 20인치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우가 쏟아졌다.

■ 옥수수

8월 14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73%에 이르는 지역이 dough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3%p 앞선 수치이다. 한편, 14일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5%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8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95%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앞선 수치이다. 꼬투리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은 80%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높은 수치이다. 주요 옥수수 재배지에서부터 동부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덕분에 성장속도가 평년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준이다.

■ 겨울밀

8월 14일 기준 수확률은 97%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낮지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2%p 높은 수준이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

■ 면화

8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88%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6%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앞서는 수치이다. 1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면화송이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앞서는 수치이다. 텍사스의 경우, Edwards Plateau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 반면, 해안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는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7%p 낮은 수준이다.



■ 쌀

8월 14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94%가 출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4%p 앞선 수치이다. 전국 수확률은 13%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4%p 앞서는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3%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7~8/13)

■ 유럽: 중부와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작물과 유지작물의 수확작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에서도 맑은 날씨 덕분에 해바라기와 옥수수가 수확을 앞두고 여물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작물의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겨울작물의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리아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 등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 서부와 세르비아 북부, 헝가리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보다 1.5~2배 정도 많았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 및 남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4~6°C 정도 높은 더운 날이 이어졌다. 러시아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C까지 오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 내외까지 올랐지만 농작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주 후반 2~4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수준의 25~60% 수준에 그치는 가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Heilongjiang, Jilin 및 내몽고 등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그 밖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보더 남부에서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지만 평균 강우량은 평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중부와 남부에서도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 호주: 밀 재배지 일대에는 비가 내렸다. 빅토리아 북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대부분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3~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남부지역에서는 20°C 초반, 북부지역에서는 30°C 중반까지 올랐다. 남서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9%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5%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밀의 파종률은 9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p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중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Rio Grande do Sul에서부터 Sao Paulo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3°C 정도 높았고, 밤 기온은 5°C 미만까지 내려갔지만 영하의 날씨는 찾아오지 않았다. 보다 북부의 Sao Paulo 북부와 Minas Gerais 남부 등에서는 계절적이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사탕수수과 커피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Mato Grosso 동부에서 북동부 내륙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